



## [낙농경영] 캐나다, '이력추적시스템의 디지털화' 박차

- 목장당 7백만원 지원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와 식품안전 강화



캐나다 낙농업계가 소비자 신뢰 제고와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새로운 디지털 이력추적 시스템을 도입했다.

최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낙농가들은 주정부의 '이력추적 도입 프로그램'을 통해 6,500달러(약 730만원)를 지원받아 실시간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 불필요한 문서 작업을 줄이고, 식품안전은 물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캐나다 낙농업계는 원유를 생산하는 목장 정보부터 생산 및 유통단계까지 전체 생산과정의 데이터를 디지털로 전환함으로써 기존에 문서 작업에 소요되던 시간과 인건비를 줄이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 확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벌게 됐다.

나아가 이력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하고 식품매개성 질병의 확산 예방, 브랜드 평판 강화 및 효율적인 기업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방 농업부 장관은 "이력추적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해 목장에서 식탁까지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식품안전을 강화하고 국내외 캐나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제고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 출처 : thecattlesite.com, 2월 5일자 >

## [과학기술] 獨, '과열 증기' 방식의 분유 제조로 에너지 절감 추진

- 분무 건조보다 빠른 수분 증발로 에너지 효율 향상 추진



독일이 분유 제조의 분무건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에 착수했다.

호엔하임대학교 연구진은 우유를 탈지분유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과열 증기를 이용해 기존의 분무 건조 방식보다 더 높은 온도와 빠른 건조 속도로 수분을 증발시킴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고안하고 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연평균 약 40만톤의 탈지분유가 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탈지분유 생산에만 연간 약 2만톤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를 통해 탈지분유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탄소배출량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출처 : dairyindustries.com, 2월 2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